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 고찰

梁 永 子*

目 次	
I. 머리말	1. 서사적 전개;사건화
II. 전승양상	2. 서정적 전개;심상화
III. 인물과의 갈등양상	V. 수사상의 특징
1. 시집식구의 유형	1. 소재
2.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양상	2. 해학
3. 친정식구와의 갈등양상	VI. 마무리
IV. 전개방식	참고문헌

I. 머 리 말

민요는 口傳文學의 어느 장르에 못지 않게 더욱 민중의 생활에 닿아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들의 사상과 정서가 반영된 婦謠는 辭說이 풍부하고 그 양과 질에 있어 빼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요 중의 한 유형인 <시집살이 노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한 명칭으로서 시집간 여자가 시집에서 겪는 생각과

* 회원

감정을 표현한 노래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¹⁾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여성민요의 대표격을 차지한다.

시집살이가 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早婚制度和 蓄妾制度 같은 사회적 제도 위에 三從之法, 七去之惡이라는 남존여비의 기형적 윤리사상 때문이었다. 出嫁에서 비롯되는 시집살이의 학대와 남성의 專橫, 이를 합리화시킨 가족·사회제도 및 生活苦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여성의 종속성이 강요당하는 정신적 갈등은 여성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다. <시집살이 노래>는 바로 인생에 핵심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분수령을 노래한 셈으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대한 부분을 읊었다고²⁾ 하겠다. 곧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살이를 통해 부녀자들의 眞率한 생활감정을 표현한 卽生活的인 女性謠이며 현실을 반영한 참된 平民女性文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민요연구는 高晶玉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그는 모든 것이 ‘안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생활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던 만큼 婦女에게 있어 생활의 핵심은 시집살이에 있다고 하였으며 <시집살이 노래>야말로 부녀의 중심이며 한국민요의 精華라고 하였다.³⁾ 이어 任東權은 內房民謠를 통해 부녀생활을 파악하고자 文學的, 民俗學的 접근을 시도하여, 6편의 논문을 모은 <韓國婦謠研究>에서 <시집살이 노래>를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서민내방문학’⁴⁾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金榮敦은 사실의 機能有無를 기준으로 하여 勞動謠와 非勞動謠로 나누었는데 <시집살이 노래>는 민간의 생활실태와 생활의식에 쏠리며, 제주도 민요의 핵심으로서 문학적 향훈이 짙은 <맷들·방아노래>에 포함된다고 봄으로써 <海女노래>와 더불어 제주도 민요의 宗家라고 확신했다.⁵⁾그런가 하면 趙東一은 비극적 서사

- 1) 서영숙, “시집살이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5, p. 6.
- 2) 任東權, <韓國婦謠研究>, 집문당, 1982, p. 17.
- 3)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 294.
- 4) 任東權, 앞의 책, p. 55.
- 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조약돌, 1983.

민요만을 대상으로 하여 민요를 장르론, 유형론, 문체론, 전승론으로 나누어 논의함으로써⁶⁾ 민요 분류에 있어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학적 문제에까지 접근하고 있어 높이 평가된다고 하겠다. 李光奎도 가족원의 대인관계를 기준으로 <시집살이 노래>를 의적 형태에 따라 시집요, 형님형님 사촌형님요, 살림요, 고된살이요, 친정생각요, 꼬댁각씨요, 남편요, 시누이요로 나누고 그 분류된 형태에 따라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⁷⁾ 羅承晩은 서사적 구조를 가진 吟詠民謠인 <시집살이 노래>의 유형구조와 문체상·내용상 특질을 고찰하여 민요가 지닌 문학적 가치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⁸⁾ 張成鎭은 <시집살이 노래>를 財物의 損失, 勞動力의 不實, 愛情의 喪失 등의 동기별로 나누어 유형분석을 하면서 인물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⁹⁾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구비문학적 방법으로 <시집살이 노래>의 한국문학의 특질을 조명하는데 힘쓴 서영숙은 <시집살이 노래>의 존재양상을 살피고 갈등양상과 전개방식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 <시집살이 노래>는 갈등의 문학으로서 조선 후기 규방가사와의 관련성까지 규명함으로써 평민여성문학으로서의 국문학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업적을 바탕으로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를 고찰하여 그 文學性을 살피고자 한다. 시집살이가 시집간 여자가 주변인물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거기서 전개되는 서정적, 서사적 양식을 통해 공통된 특질을 밝힘과 아울러 그 수사적 특질까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시집살이 노래>의 전체적 양상을 보다 올바르게

-
- 6)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9.
 - 7) 李光奎, “민요에 비친 시집살이”, 《韓國文化人類學》 제1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 8) 羅承晩, “吟詠民謠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9) 張成鎭, “시집살이謠의 類型과 人物”, 《女性問題研究》 제13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4.
 - 10)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5.

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한 음악적·민속학적·문학
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 글에서는 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만
큼 <시집살이 노래>의 사실에 나타난 유의성에 중점을 두었다. 본고의 자료로
서는 先學들의 자료집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안덕
면 덕수리·상천리, 조천읍 신촌리, 성산읍 수산 1리, 구좌읍 덕천리에서 채
록한 8편의 자료를 포함하여 276편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표1>과 같다.

II. 전 승 양 상

<시집살이 노래>는 개인감정을 토로한 신세한탄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
는데 친분형성이 이뤄진 여성집단의 노래이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 역시
여느 민요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소리꾼이 아닌 누구나 보편적으로 불렀던
노래였으나 때론 시집가기 전에 이미 주위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 배우기
도 하였다. 혹은 시집간 여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노래집단은 여성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연령별
로는 조금씩 다르게 구연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대체로 55세 이상의 여성들은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이 노래는 거의 비슷한 처지의 신분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 불렀는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아무데서나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덕수리 양미생 할머니의 경우는 한 마을에 세동서와 큰 시누이가 살고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며 시집식구를 드러내는 노래를 부르기를 주저했고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을 배워서 뭐하겠느냐며 부르지 않았다. 이는 <시집살이 노래>가 같
은 처지의 신세한탄 할 수 있는 집단내에서 부르는 동질적이며 폐쇄적인 성격
이 있는 노래임을 말해준다.

<시집살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면 <ㄱ레ㄱ는소리>라고 하며 부르기도
하고 다른 노래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는가 하면, 전국 분포의 고정적 유
형인 '사촌성님요'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민요가 많이 사라진 요즘은 창부

〈표1〉

번호	저	자	서	명	발	행	처	발행연도	권수
1	林	和	朝鮮民話選		學	藝	社	1939	42
2	金思燁·崔常壽·方鍾鉉	玉	朝鮮民話集成		正	音	社	1948	17
3	高	晶	朝鮮民話研究		首	善	社	1949	9
4	金	永	濟州島民話選		中	央	化	1958	17
5	任	東	韓國民話集 I		集	文	堂	1961	4
6	洪	貞	濟州島民話解脫		省	文	社	1963	14
7	金	榮	濟州島民話研究 上		一	潮	閣	1965	95
8	蔡	聖	南國의 民話		濟	州	民	1968	17
9	任	東	韓國民話集 II		集	文	堂	1974	3
10	任	東	韓國民話集 IV		集	文	堂	1979	3
11	金	榮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5		文	公	館	1979	18
12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	國	精	1983	2
13	권오성·김영돈 이보형·한만영		韓國의 民俗音樂 (제주도편)		韓	國	精	1984	5
14	金	榮	濟州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濟	州	道	1986	2
15	濟大, 國	文	國文學報 8		濟	大	國	1986	3
16	濟大, 國	文, 國	學術調查報告書 第7輯		濟	大	國	1982	3
17	濟大, 國	文, 國	學術調查報告書 第8輯		濟	大	國	1984	2
18	濟大, 國	語	白麁語文 창간호		濟	大	國	1986	3
19	濟大, 國	語	白麁語文 제2집		濟	大	國	1987	2
20	오	성	제주마을시리즈 3(함덕리)		도	서	출	1986	2
21	오	성	제주마을시리즈 4(호근, 서호리)		도	서	출	1986	1
22	오	성	제주마을시리즈 5(古城里)		도	서	출	1987	2
23	오	성	제주마을시리즈 7(봉개리)		도	서	출	1988	2
24	필	자	채		도	서	출	1988	8
계									276

타령 가락에 맞춰 부르기도 하는데¹¹⁾ 지난 겨울 필자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음식 마련을 도와주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지막날 일이 끝나갈 즈음 창부터령 가락에 맞춰 <시집살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춤을 추며 노시는 모습을 대할 수 있었다.

<시집살이 노래>는 여성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읊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맷돌·방아노래>처럼 비교적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에서 노동의 實態와 무관하게 唱者의 심정, 정의를 노래한¹²⁾ 것이 사실이다. <시집살이 노래>가 <맷돌·방아노래>에 전하는 것을 보면 獨唱이 대부분이다. ㄱ레를 갈면서 부를 경우 ㄱ레체경을 두 사람이 잡고 돌려가며 번갈아 부르므로 앞분이 사설을 부르고 뒷분이 후렴을 잇는 先後唱으로 이어지거나 唱者가 서로 번갈아 부르므로 交唱形式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도 先唱者와 後唱者가 사설을 주고 받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즉 전체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맷돌·방아노래>에서는 '이여이여 이여도 하라', '이연이연 이여도 ㄱ레',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같은 導唱으로 시작되고 사설 중간이나 각편이 끝날 때 붙어 후렴구로서 對句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방아노래>의 경우 두사람이 하면 '두콜', 세사람이 하면 '식콜'이 되는데 이 때도 唱法은 유사하다.

그런데 <시집살이 노래>의 사설은 <김매는 노래>¹³⁾, <베틀노래>¹⁴⁾, <도리깨질소리>¹⁵⁾, 해녀들이 놀 때 부르는 잡가¹⁶⁾에도 나옴으로써 <맷돌·방아노래>에 기능이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산읍 수산 1리에서 민요조사

11) 玄容駿, 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p. 1041, 대정읍민요 6번의 자료.

12) 金榮敦, 《제주도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조약돌, 1983.

13) 『國文學報』 8집 (杏源里 학술조사), 국어국문학회, 1986. 《白鹿語文》 2집 (溫平里 학술조사), 국어교육학회, 1987.

14) 《學術調查報告書》 8집, 국어국문·국어교육학회, 1984.

15) 오성찬; 《제주마을시리즈》 5집 (성산읍 古城里), 1987.

16) 오성찬; 《제주마을시리즈》 5집 (성산읍 古城里), 1987.

를 할 때¹⁷⁾ 강여운(女. 55세) 아주머니는 <김매는 노래>에 <시집살이 노래>의 사설을 섞어 부르고 있어 물어봤더니 어느 한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창자의 의도대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는 맷돌, 방아, 베틀, 도리깨 등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 등으로 김매는 작업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런 노래를 듣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인위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청해야만 들을 수 있는 실정이다. 간혹 노래를 부르다가도 '일허명 허랜 헌거주 안지난 노래가 안땀염쑤다'면서 중단해 버리거나, 처음부터 구연상황을 재현해 놓고서 동작을 해가며 부르는 것은 <시집살이 노래>가 노동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노래적 성격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집살이 노래>가 여자들의 모든 일상에 두루 걸쳐 있으면서 생활감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때는 비기능적 요소가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겠다. 개인적 신세한탄, 시집살이의 고됨이 진솔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노래가 종종 창자의 生涯歷을 담고 있음은 이를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의 경우는 창자의 경험담이 덧붙여지거나 상상력이 가미되어 長形化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기능과는 무관하게 민간생활의 일면을 읊은 비기능요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기능적·비기능적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으로 미루어 <시집살이 노래>는 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일의 성취기대'와 시름을 달래고 덜기 위한 '자기표현의 욕구'의 양면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시집살이 노래>에 서정적·서사적 노래가 함께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¹⁸⁾ 즉 자기의 신세한탄 및 시름을 잊고 극복하려는 서정적 노래와 일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건을 서사적으로 전개하여 연결시키는 서사적인 노래가 구분없이 불리었을 것이다. 때문에 특히 경험을 그대로 부른 노래의 경우 공감형성에 더 큰 작용을 하게 된다.

<시집살이 노래>인 경우 종종적으로 불려지거나, 전승되는 것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 해가죽화하면서 <시집살이 노래>가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어지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55세 가량 이상의 부녀자

17) 1988. 7. 3일 조사.

18) 서영숙, 앞의 논문, p. 15.

들이 전에 불렀던 노래 혹은 배웠던 노래를 부르는 전승적 요소만이 남아 있다. <시집살이 노래>가 전승되는 경우 창자들이 노래를 지었다고도 하며 배워서 불렀다고도 하는 것은 고정체계인 전승적 요소와 비고정체계인 창작적 요소가 섞여 전승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전승되는 노래인 경우는 대부분이 공식적 표현과 전형적인 짜임새를 갖추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시집살이 노래>는 어려서는 관습적으로 부르다가, 머느리가 되어서는 비로소 자각적으로 부르나 남에게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할머니가 되어서는 남 앞에 드러낼 수 있으나 회고적으로 부른다.¹⁹⁾ 이미 널리 알려진 <시집살이 노래>는 여러번 불리면서 보편화되고 전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래의 전승에는 창자와 청중의 심리적 거리도 크게 좌우했을 것이므로 개인적이고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보다는 두루 일반화된 내용을 다루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래집단 내의 심리적 거리에 공감형성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Ⅲ. 인물과의 갈등양상

1. 시집식구의 유형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간 여자가 가족원의 對人關係에서 겪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인물의 유형과 갈등양상을 통해 문학성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주역은 시집간 여자로서 고정적이며 상대역은 몇몇 주변인물로 제한되므로 인물의 갈등양상을 통해서 분류하는 이러한 작업은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19) 서영숙, 앞의 논문.

큰 애기 때 할머니에게 배운 노래를 암기했다가 부르는 것을 '관습적 전승단계', 실제로 자신이 시집살이를 겪게 되면서 배운 노래를 기억해내고 자신의 체험에 의해 가다듬기도 하는 것을 '자각적 전승단계', 머느리 위치에서 벗어나 시어머니의 위치에서 자신의 옛 경험을 기억해내고 비판적 입장을 취할 때 '회고적 전승단계'라 하였다.

그런데 한 작품에 하나의 인물유형과만 갈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들은 사건진행을 돕거나 상황을 강조해 준다.

일반적으로 家族을 정의하면 '家計를 共同으로 하는 親族集團'²⁰⁾이라 할 수 있는데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창자와 직접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가족 곧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동서 정도의 가족들과 갈등을 펼치되 局外者로서, 소외자로서 열세한 위치에서 성립된다.²¹⁾

본고에서는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인물유형을 시집식구로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및 첩과 친정식구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고찰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 인물의 갈등양상은 시어머니 25, 시누이 20, 남편 11, 첩 40, 친정식구 14 등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시집식구가 고루 등장하는 것이 73편이었다.

시집식구 전반과의 갈등을 보이는 경우는, 한국 전반에 전형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사촌성남요'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가 채보하는 과정에서 <시집살이 노래>를 청했을 때 대부분 창자들의 구연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경우는 시집식구 전반이 안타고니스트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한 인물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하는 善民들의 성정과도 통할 것이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첩 등을 한숨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戲畫化하는 데도 적절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옛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父系一眞系家族制度에서는 出家한 여자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지 않고 婚入한 여자가 媵家에 심리적 적응과정이 어떠하였느냐, 媵家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 공헌을 하였느냐, 家系를 계승할 아들을 출산하였느냐의 정도에 따라 成就地位가 주어졌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성취지위의 입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서로 적대세력으로 완강한 의지를 보인다. 이 경우 갈등은 고난과 좌절로 인해 며느리가 죽거나 승이 되어 절로 떠나기도 한다.²²⁾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20)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一志社, 1982, p. 29.

21) 張成鎮, 앞의 논문, p. 16.

22) 영남지방의 叙亭民謠의 경우 두드러진다.

오히려 며느리의 억척스러움과 反動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동조자로서 울케를 나무라고 온갖 암체같은 행동은 다 하며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 서로 도와가며 일하기보다는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고 고자질하므로 힘든 상대가 아닐 수 없다.

남편과의 갈등양상은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선 남편은 시집식구와 시집간 여자와의 관계에서 중간적 존재로 인식되므로 때로는 부모님과 아내의 다리 역할을 잘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시집살이가 남편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간혹 남편의 부재로 인한 시집살이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역시 남편의 존재와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시사한다. 그런데 때론 남편을 사이에 둔 심각한 애정대립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본부인과 첩을 위계질서 지우고 있지만 공공연히 축첩이 허용되고 있던 가족제도에서 파생되는 사회악의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시집간 여자는 시집식구의 차별대우와 노동의 피로, 애정상실로 인한 갈등까지 겹쳐 좌절하게 되었던 것이다.

첩은 시집간 여자와 남편과의 관계 및 가정의 질서를 좌우하는 것으로 시집살이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시집간 여자가 가장 강한 반발을 보이는 상대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는 다른 시집식구들보다도 첩노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과 함께 分家하는 독특한 가족제도로 시집살이는 오히려 덜했으며 당시 축첩이 횡행하던 사회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는 시집간 여자가 첩을 미워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노래 외에 첩자신이 자조와 한탄을 하는 내용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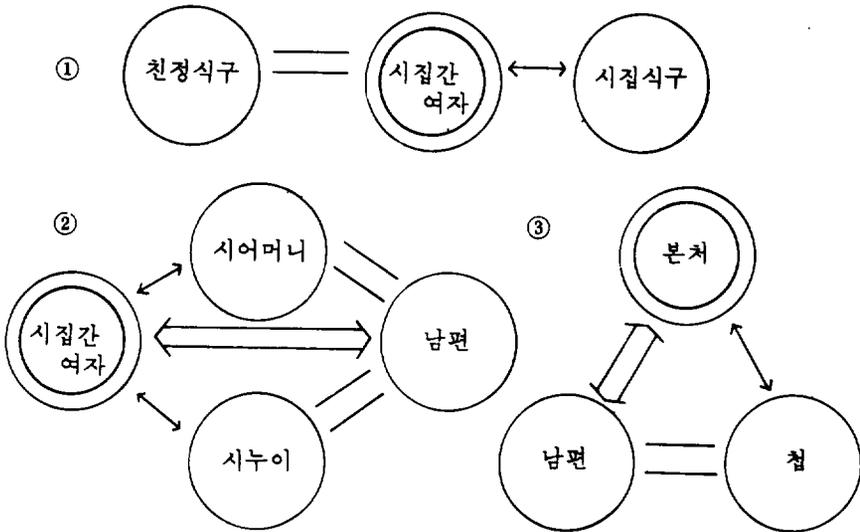
시집식구와는 달리 친정식구인 경우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게 보편적이다. 때로는 친정오빠가 시집갈 것을 권유한 데 대해 나무라거나 친정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게 원망스럽다고도 표현한다. 그만큼 친정은 시집살이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정겨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세타령, 한탄, 애소, 눈물, 그리움이 주조를 이룬다. 그런데 친정식구인 경우 시집간 여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돌아갔을 때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데서 갈등을 보

이기도 한다.

인물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대립적관계, = 우호적 관계, ⇔ 우호적이기도 하고 대립적이기도 함)

<그림>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는 시집식구 전반과 관련된 전형적인 노래를 제외하면 첩노래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시어머니, 시누이 등으로 나타난다. 안타고 니스트로 여자가 많은 것은 <시집살이 노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첩노래가 다른 지방보다 많은 것은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특질이라 하겠다. 시아버지는 시집식구 전반과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볼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집안 어른으로서의 위엄과 비교적 며느리에게 관대했음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 같다. 이 외에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인물유형은 나타나지 않지만 강한 시집살이의 감정을 토로한 <시집살이 노래>들은 생활감정을 진솔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작품성을 찾는 데 가치롭다.

2.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양상

1) 시집식구 전반과의 갈등

시집살이는 三從之道, 七去之惡같은 유교도덕론의 여러 조항을 내세워 안간의 지우로운 욕망이나 행위를 제약하는 데서 社會背景의 필연적 결과가 <시집살이 노래>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生活苦, 시집식구와의 불화로 여성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들의 실제의 갈등들이 노래를 통해 해소되었다.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는 대부분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방해하는 시집식구들에 대한 적대적 정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²³⁾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시집살이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듯하나 가난으로 인한 괴로움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分家에 따른 관습과 여러 풍토·지리적 여건의 반영일 것이다.

씨집이엔	오라렌보난
뽕박지는집에	앙작 7 레에
벌작놀레에	올림치기죽순가락에
귀막은씨아방에	눈먼씨어멍에. ²⁴⁾

시집와서 보니 천정이 너무 낮고 험어서 별이 보일 것처럼 승승하고, 맷돌은 곡식을 갈지 않으므로 울고 있고, 부르는 노래마저 악을 쓰게 되고 숟가락도 부러진 것들 밖에 없는데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귀·눈까지 막았으니 시집살이의 고충이 어떠하다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척박한 토양과 특이한 자연조건으로 농사가 안되어 가난이 되풀이됨으로써 눈물겨운 生活苦로 나타나고 있다. 시집살이의 현실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이 노래를 통해 도민의 생활상과 강한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23) 김재영: "민요의 제재와 그 의미",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2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423번의 자료.

경제적 여건이 시집살이를 좌우하는 내용은 노래에 종종 나타난다.

시집가고	이삼일만에
양동이틀	깨어노와난
씨아버니	씨어머니
나서고	이르는말이
너의집의	
가사전택	다플려도
양동이만	물어도라
며느리나사	이르는말이
나의집에	
가사전택	팔던안팔던
천냥이나	만냥이나썬
이내몸은	댁도련님의
호스폰에	내래왔이니
가사전택을	아니팔아도
물어올지	아니올지
전어찌아리아	어찌올라
진주남강	너르다해도
시어멍이	시아방이
코이크오. ²⁵⁾	

敍事民謠의 변형인듯한 이 노래에는 시집에 대한 강한 반발이 보이고 있다. 시부모가 재산의 변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며느리는 시집살이로 현 자신의 몸은 家事田宅을 다 팔아도 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는 시부모의 콧대가 너무 높음을 비웃고 있다. 곧 며느리를 인간으로서보다는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생각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데 대한 각성과 반발이다.

시집식구를 표현한 빼어난 노래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5) 金思燁·崔常壽·方鍾鉉, 《朝鮮民謠集成》, p. 320.

- | | | |
|----|----------|-----------------------|
| A. | 이여이여 | 이여도허라 |
| | 날랑죽건 | 닥빳되문영 |
| | 일천선비 | 글밭애놀라 |
| | 이여동허라 | 이여동허라 |
| | 성님성님 | 사촌성님 |
| | 시넝살이가 | 어땡삼데가 |
| | 아이고애야 | 말도말라 |
| | 장둑답은 | 시아방애 |
| | 암록답은 | 시아멍애 |
| | 물꾸럭답은 | 서방님애 |
| | 구제기답은 | 시누이애 |
| | 살젠허난 | 고생이되연 |
| | 간장간장 | 일천간장 |
| | 다대기멍 | 살암져훈다 |
| | 이여이여 | 이여도허라 |
| | 이연말랑 | 말아근가라 |
| | 무정세월 | 여투허연 |
| | 눈물계완 | 살단에보난 두어~ |
| | 다늬어간다 | |
| | 맹사십리 | 해당화는 |
| | 맹년삼월봄이오면 | 오전마는 |
| | 우리인생은 | 한번가민 |
| | 다시오지 | 못하는구나 |
| | 이여이여 | 이여도허라. ²⁶⁾ |
| B. | 성님성님 | 사촌성님 |
| | 시집살이가 | 어땡데가 |
| | 아이고애야 | 말도말라 |
| | 고추장단지가 | 매움맹흔들 |
| | 요씨넝살이보다 | 더매우라 |

26) 필자조사, 1988. 3. 28. 안덕면 덕수리, 제보자; 윤추월, 女·73세.

늪두서	꼬리감음만한다
시누인	베룩이닷뚱
시어멍은	논물이닷뚱
시아방은	신씨래없어
가라오라	드리는집외
눈어두형	연삼년살고
말물라근	연삼년살고
귀막아근	연삼년살아
아흠삼년사난	가랜말어서라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²⁷⁾

'성님성님 사촌성님'을 노래한 <시집살이 노래>는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전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C·G·Jung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방법으로 생각하며, 느끼며, 지각하며 행동하는 많은 소질을 갖고 있다. 이 소질들 또는 잠재적 이미지의 발달과 표현은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있다. 집합무의식의 내용들은 지각과 행동의 취사선택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쉽게 지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반응하기 쉬운 까닭은 집합무의식에 소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집합무의식의 내용들은 일정한 개인적 행동의 원형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태고유형 혹은 원형(archetype)이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기본적인 태고유형 이미지를 유전적으로 이어받는다²⁸⁾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어떻게가'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제주도 전역에 한결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며 <시집살이 노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정적인 유형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전승 변이되는 과정에서 사설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거나 지역성이 보일뿐 동일한 이미지인 것

27) 필자조사, 1988. 3. 27. 안덕면 덕수리, 제보자: 양미생, 女·82세.

28) C·G·Jung/C·S홀/J·야코비 지음, <융심리학해설>(설명환옮김), 선영사, 1986.

로 봐서 이를 <시집살이 노래>의 한국적인 原形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결같이 시집살이의 고됨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거나 시집살이는 고추보다도 매웁게 설명되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고루 등장하여 魚介, 곤충, 동물에 비유되어 성격묘사에 마뜩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위의 두 노래는 모두 7례를 갈면서 유장하게 불러졌으므로 '이여이여 이여도허라'라는 후렴구가 나오고 있다. A인 경우에는 글을 배우지 못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서러운 마음을 '닥발'의 종이가 되어 선비의 글밭에 놀겠다는 창자의 希願을 담고 있는가 하면, 시집살이로 인생을 다 보내는 데서 명사십리 해당화는 봄이 오면 다시 피지만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는 무상감을 하소연하는 인생철학까지 엿볼 수 있다. B의 노래에도 시집살이는 누워서 짚을 꼬는 것과 비교하여, 누워서 일을 할 경우 지푸라기가 눈에 들어 아프듯이 시집살이가 고통스러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눈먼 듯, 귀막은 듯, 말을 모르는 듯, 근 10년을 모든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강한 여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시집살이가 고되었으므로 시집으로 가는 길도 참억새밭에 걸이나 나서 발을 베어 돌아가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을 보이는가 하면, 시집을 '물도 없는 귀양성'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시집살이의 고됨이 이해가 갈 것이다.

2)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늘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접촉하는 데서 발생한다. 시어머니는 먼저 살림살이에 경제적 공헌을 한데다가 아들로 하여 심리적 위로를 받으며 확보해 온 성취지위가 며느리가 들어옴으로써 경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들과 남편으로서의 애정의 삼각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대립을 보이게 된다. 대체로 안타고니스트로서 시어머니의 우위는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인간적인 차별을 하는 인물이다.

- | | | |
|----|---|--|
| A. | 감재유제
메늘애기
보리방애
메늘애기 | 먹을때썸엔
웃이민호당
물서겨노난
비차락줘라. ²⁹⁾ |
| B. | 메늘애기
새벙도독눔
나쁘아기
서월선비
메늘애기
시커쭈삭삭
나똥아기
은기조랑
듣지도 | 비질하는상은
비질하는상이여
비질하는상은
글쓰는상이여
오줌눅는상은
듣지도싫다
오줌눅는상은
늦기조랑
좋다. ³⁰⁾ |
| C. | 씨넉종서
쩍클지영
새뭇지영
씨어머님
낸들살앙 | 난살젠허난
물레레들라
볼레레들라
영문일러라
무엇을하리. ³¹⁾ |

A에서는 단감을 먹을 때는 본척만척 하다가 방아를 쥘게 되니까 머느리에 게 빗자루를 갖다주는 시어머니의 얄미운 모습과, 필요한 때는 부러먹다가 나중에 아랑곳 앓는 야박한 인정을 풍자하고 있다. B에서는 머느리 비질하는 모습을 도독눔의 모습에 딸의 비질하는 모습은 서월선비 글씨쓰는 모습에 빗대는가 하면, 생리적인 현상을 놓고 머느리 오줌눅는 모습은 듣기 싫지만 딸

29)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 上》, 475번의 자료.

30) 김영돈, 위의책, 479번의 자료.

31) 진성기, 《南國의 民謠》 18번의 자료, p. 28.

의 오줌놓는 모습은 은요강, 낫요강에 곱게 놓는 모습으로 보는 등 며느리의 일거일동이 시어머니의 눈에는 달갑지 않고 거슬리게만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C에서는 벼훑이를 저서 물 속으로 들라 하고 떠뭍음을 저서 불 속으로 들라는 식으로 온갖 고난에 빠뜨리지만 시어머니는 까닭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시집살이가 고될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때론 시어머니에 대한 매우 과격한 욕설과 저주를 드러내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³²⁾ 적대감의 가장 직접적 표현은 욕설이지만 이들 노래의 제재는 욕설이 대상이기 보다는 욕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는 민요가 얼마나 소박한 자기표현이며 민요의 제재가 얼마나 무제한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³³⁾이기도 하다.

3) 시누이와의 갈등

總家의 많은 형제 중에서도 시누이와의 갈등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사소한 감정상의 대립으로 협조보다는 공연한 트집과 허물을 씌우기가 일쑤이며 항상 어머니편에 서서 못살게 굴었으므로 늘 반목이 심했다.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속담도 생겨난 듯하다.

씨누이야	생가령말라
나도가민	어멍일러라
너도가민	씨집일러라
산도설고	물도선곳에
누를보고	내여기왔나
네오라비	전채곳아니면
네집올래	어디영알리
기워집이	열다섯길인들
구경하며	내오랴더나

32) 오성찬, 《제주마을시리즈》 7집. (봉개리), 1988.

33) 鄭東華, 《韓國民謡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81, p. 112.

맹지치마	입던허리에
꼭베치마	웬일이더냐
영초저구리	입던몸에
미영적삼	웬일이더냐
은가락지	끼우던손에
호미단칼	웬일이더냐
가막창신	신던발에
세각신이	웬일이더냐

가슴석은	물이언마는
숫아울란	눈물이더라
나는물은	여외주러라
진디마다	덕이나들라. ³⁴⁾

같은 여자이면서도 울케에 대해 더욱 매물차고 냉정했으며 시저드름이 심한 데 대한 반발이다. 시누이도 여자이거늘 易地思之해보면 자신도 시집가게 될 것을 왜 그리 못살게 구느냐는 항변이다. 오라비와 惡緣의 꽃이 피어 왔지 시집 대문을 어떻게 알고 왔겠으며 큰 기와집이 있어 구경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한다. 친정에 있을 때는 ‘맹지치마, 영초저구리, 은가락지, 가막창신’ 같은 좋은 것을 지녔었는데 시집와서는 ‘꼭베치마, 미영적삼, 호미단칼, 세각신’으로 바뀐 것에 대한 서러움과 동시에 이들의 대조를 통해 은근히 자신의 친정이 시집보다 잘 살고 있음을 자랑하여 드러냄으로써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남편과의 갈등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에서 남편은 시집간 여자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된다. 시집살이에서 남편은 고난을 부과하는 적대자, 또는 고난을 해결해주는 원조자, 또는 방관자로 나타난

34) 高晶玉, 앞의책, pp. 308~309.

任東權, 《韓國民謠集 I》, p. 134.

다. 대부분의 경우 시집간 여자는 남편을 매우 필요로 하나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나타날 때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편과의 갈등의 주요원인은 애정의 결핍에 있을 것이다.

서방이엔	난믿어서도
신두얼어	신은배었다
지집이엔	난믿어서도
웃도얼어	입은배었다. ³⁵⁾

남편이라 믿어도 신발 한켠레 얼어 신은 바 없고 아내라고 믿고 살기는 하나 옷 한벌 얼어 입은 바 없는 쓸쓸하고 차가운 부부생활을 읊었다. 이런 살림 일진대 情談이 오갈 리 없으며 사랑이 싹틀 리 없다. 어쩌다 첩이라도 얼어서 들어오는 날이면 여자의 살림살이는 엄청난 풍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바닷결은	又 結을 울리고
又 結은	여흘을 울리고
입은무사	날 올림시니. ³⁶⁾

천리뒤에	눔으로 알마
벗리거던	꽃인때 벗리고
벗리거던	일핀때 벗리고
잎가불고	꽃가본 후에
입이만들	내어디가랴. ³⁷⁾

전처소박	양침한눔아
꽃밭에다	불지른눔아
대천바당	가운데들영
가리일영	둘진밤세라. ³⁸⁾

35) 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1963, p. 160.

36) 金思燁·崔常壽·方鍾鉉, 앞의 책, p. 331.

37) 金思燁·崔常壽·方鍾鉉, 위의 책, p. 307.

38) 金思燁·崔常壽·方鍾鉉, 위의 책, p. 314.

남편의 축첩이 허용되는 사회제도는 시집간 여자에 대한 남편의 우위를 인정하고 애정 역시 남편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여자에게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랑의 표현이 억제되게 마련이다. 바다 파도가 가(邊)를 울리고 그것이 여울을 울리고 입은 왜 자기를 울리느냐고 한탄하는가 하면, 버릴려거든 꽃피고 잎핀 한창 아름다운 때 버리련만, 잎이 지고 꽃이 져서 늙어진 후 버리니 신세가 가련하기 그지 없다.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전처를 버리고 첩을 들썩이나 해서 평온한 가정에 파문을 일으켰으니 큰 바다 가운데서 다리를 잃고 달도 없는 어두컴컴한 밤을 지새우라고 화풀이 한다.

5) 첩과의 갈등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엔 다른 인물과의 갈등보다도 첩과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주도의 첩제도의 성격인 것 같다.

첩은 애정이란 기본적 욕구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대결을 보인다. 제주도에 있어서 첩은 妾, 小室, 작은집, 시앗 등으로 불리고 있다. 첩은 '작은각시'로 호칭하고 본처는 '큰각시'로 부르며, 첩이 본처를 부를 때는 '성님'이라 직접 호칭하고, 처는 첩을 '아시'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제주도의 첩은 전통적 육지 농촌에서처럼 예속적 지위에 있지 않다. 친족원 사이에 처첩간 호칭차가 없고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嫡子와 庶子의 차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장례식, 묘지, 제사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다. 제주도의 첩은 여자의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다. 곧, 남자의 입장으로는 신분적 차이가 거의 없는 一夫多妻의 가족제도라 할 수 있으며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再婚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의 첩은 육지의 양반가의 첩과는 달리 남자와 본처에 대해 예속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육의노동에도 종사한다. 이로 미루어 제주도의 여성은 특히, 첩은 육지 여성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첩의 비율 역시 육지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제주도의 첩제도는 제주도 여자의 이혼과 재혼, 女多男少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기도 한다.³⁹⁾

축첩이 빈번했으므로 처첩간의 갈등은 더욱 심했을 것이다.

39) 崔在錫, 《濟州島の 親族組織》, 一志社, 1979.

씨앗이엔	틀으레가난
같은빛의	메마곳 ㄴ찌
회번듯이	나앗아서라
나여히에	요만이고난
임여히엔	언매나좋으카
이여이여	이여도항라
앞문으로	받은펜지를
뒷문으로	열려보난
씨앗의잡년이	죽었겐
펜지받은	쇄케기반찬에도
맛웃던밥이	소곰반찬에도
문짚문짚	잘넘어간다.
무신뱅에나	죽었더냐
나력뱅에도	죽었더라
이여도항라	그년저년
잘죽었더라. ⁴⁰⁾	

자기의 사랑을 빼앗아 간 원수같은 시앗이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그런 시앗과는 물가에서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같은 길을 가는 것조차 꺼렸다. 시앗이 죽었다고 하므로 소고기 반찬에도 맛없던 밥이 소곰 반찬에도 잘 넘어간다고 승리의 쾌감까지 느끼고 있다. 시집간 여자가 승리함으로써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첩에 대한 반발이 좀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

3. 친정식구와의 갈등양상

고추보다 더 매운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부모생각이 간절하고 때로는 친정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절절한 내용들이 나온다.

40) 김영돈, 《濟州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제주도, 1986, pp. 91~92.

눔두가는	질이언마는
어멍무사	나뒸은질은
가시것고	뒤지서서리. ⁴¹⁾

저승덜에	가는이시면
아바님께	편지나하영
편지보멍	날달래오게. ⁴²⁾

시집살이는 다른 여자들도 하는 것이지만 유독 자신의 생활이 더 고생되고 어려움이 많은가고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는가 하면, 이미 돌아가신 아바님께 편지나 쓰면 아버지가 딸의 고충을 알고 데려가지나 않을까 하여 차라리 죽고 싶도록 그리움에 사무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멍신덜	날가랭허민
왕대족대	엇베인그를로
신울벗엉	새놀듯혼다. ⁴³⁾

어머니 제신 친정엘 가라고 하면 왕대족대가 엇비슷하게 베어진 길 곧, 그만큼 날카롭고 험한 곳이라도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라도 서슴지 않고 뛰어가겠다는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41) 金思燁·崔常壽·方鍾鉉, 앞의 책, p. 321.

42) 林 和, 《朝鮮民謠選》 140번, p. 220.

43) 洪貞杓, 앞의 책, p. 154.

진성기, 앞의 책, 22번, p. 30.

IV. 전 개 방 식

〈시집살이 노래〉는 사건화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심상화하여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둘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화하는 경우를 서사적 노래, 심상화하는 경우를 서정적 노래라 할 수 있다.

인물의 갈등양상을 놓고 볼 때 프로타гон리스트의 요구가 드러나는 것을 '기대', 거부되는 것을 '좌절'이라고 한다면 〈시집살이 노래〉는 병립적이건 순차적이건 그 구조적 특성이 '기대와 좌절의 반복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집살이 노래〉는 일반적 전개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기대·좌절형', 기대만 있는 '기대연속형', 좌절만 있는 경우를 '좌절연속형'이라 본다.⁴⁴⁾

1. 서사적 전개 : 사건화

조동일은 '여러 구체적 단락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段落素로 정의하고 叙事民謠가 "苦難-解決의 試圖-挫折-(解決)"의 구조로 되어 社會的·美學的 意義를 지닌다고 하였으며⁴⁵⁾ 서영숙은 인물의 갈등양상과 관련지어 '갈등의 발생→해소의 시도→좌절→갈등의 해소'로 전개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 때 '갈등의 발생'하는 것은 〈시집살이 노래〉의 공통적 요소이지만 '갈등의 해소' 되는 것은 '해소의 시도'와 '좌절'단락의 전개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필수적인 단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되거나 삭제되는 것은 창자의 개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44) 서영숙, 앞의 논문, pp. 41~46.

45)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계명대출판부, 1970, pp. 86~94.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기대·좌절형'인 경우는 '기대'를 통해 요구를 펴고 '좌절'을 통해 자신을 굽히는 현실적 모습이 나타난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다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

(편의상 기대는 (+)로, 좌절은 (-)로 표시한다)

- (가) 시집살이의 괴로움에 신세한탄한다. (-)
- (나) 사촌성님한테 시집살이에 대해 물어본다(+)
- (다) 시집살이는 고추보다 맵다고 하며 비판한다. (-)
- (라) 친정아버지 말씀을 생각하고 참고 살려고 맘먹는다. (+)
- (마) 노력해도 안되니 남편보고 친정으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 (-)
- (바) 친정가는 길에 짬을 잡고 돌아와서 시집식구에게 나눠준다. (+)⁴⁶⁾

이 때 (가)단락은 갈등의 발생이고, (나)·(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며 (다)·(마)는 주변인물들에게 하소연했는데 역시 좌절하게 되고 (바)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시집간 여자의 '기대'와 '좌절'의 반복을 통해서 시집간 여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주변인물들의 요구까지도 알게 된다. (라)에서는 귀막아, 눈멀어, 말물라 삼년씩 살라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사회통념이나 규범까지도 알게 해준다.

'기대연속형'의 경우를 보면

- (가) 양동이를 깨자 시부모가 양동이를 물어달라고 한다. (-)
- (나) 며느리가 나서 자신의 몸이 헌 것에 대해 항의한다. (+)
- (다) 시부모 콧대를 꺾는다. (+)⁴⁷⁾

며느리가 과감히 항의하고 있는 이 노래에는 갈등의 발생과 해소의 시도 사이에서 며느리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46) 필자채록, 1988. 3. 26. 조천읍신촌리, 제보자: 김경생, 女·70세.

47) 金思燁·崔常壽·方鍾鉉, 위의 책, p.320.

‘좌절연속형’의 경우는

(가) 밀을 갈아 범벅을 했는데 양이 너무 적었다. (-)

(나) 시집식구들에게 나누는데 남편은 양이 너무 적다고 아내를 때렸다.

(-)

(다) 화난 아내는 다시 집안 동물들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⁴⁸⁾

生活苦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발생하고 해소의 시도도 없이 연속적으로 좌절 상황에 이르고 있다.

2. 서정적전개 : 심상화

사건화하는 경우가 인물과 인물의 대립으로써 기대와 좌절을 반복시킨다면 심상화의 경우는 마음의 변화로써 기대와 좌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저산으랑	난지겐한난] (+)
진빵졸란	난못지난	
시어멍광	시누이년은] (-)
예점말에	나그르맹하여라. ⁴⁹⁾	

산을 둘러메고자 하나 짐빠가 짊어 못 지듯 시부모봉양을 잘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역부족인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년은 그저 못한다는 질책만 한다고 한탄한다. 기대와 좌절이 함께 나타나는 ‘기대·좌절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연속형’의 노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다음의 노래에서는 기대상황만 나타나고 있다.

48)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 上>, 459번의 자료.

49) 김영돈, 위의 책 450번의 자료.

좁좁이모완	지새집허난] (+)
시상사름	다 칭찬하고	
시동새가	한집이사난] (+)
산쇠다리	비여라혼다. ⁵⁰⁾	

좁좁이 모아서 기와집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세 동서가 의종
 계 한집에 사니 산쇠다리가 베이더라는 내용이다. 여자의 경제적 공헌과 화목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좌절연속형’의 경우는 매우 많이 나타난다. 신세한탄이나 애소, 그리움 등
 인 경우는 대부분 좌절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울명실멍	좁으멍살앙] (-)
홀로앗앙	설론눈물울	
발레레	지우멍봐도] (-)
아는사람	흐나웃어라. ⁵¹⁾	

참으며 살고 홀로 설론 눈물을 흘리면서 발로 지우면서 살아봐도 이렇듯 애
 닳픈 심정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이런 좌절 연속형인
 경우는 사실이 첨가되어 한없이 길어지고 長形化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간 여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심리적인 면과 오랜 작
 업 속에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한 기능적인 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구연상황과 연관지어 보면 ‘기대와 좌절의 반
 복’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서사적 노래와 서정적 노래가 섞여 나
 타났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론 서두는 서정적으로 시작되다
 가 長形化하면서 사건화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럿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경
 우는 그 결말에 의해 창자와 청중의 심리적 반응이 가미되어 창작·전승되어

50) 진성기, 《南國의 民謠》 24번자료, p. 31.

51)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 上》, 461번의 자료.

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까지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전개방식을 통해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제주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서를 살필 수 있었다.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 역시 민중의 역사와 삶의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서사성'이 강조되는 노래와, 정서와 관련되며 노동과도 무관하지 않은 '서정성'이 강조되는 노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민중의 美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 역사와 체험을 공유할 때, 아이덴티티가 형성될 때, 노동의 일체감을 이룰 때 비판적 정서가 얻어지며 이 비판적 정서는 곧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는 데서 얻어지는 변증법적 정서라고 한다⁵²⁾면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 역시 제주도민의 구체적 정서에 닿아 있는 훌륭한 것이라 하겠다.

V. 수사상의 특질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사설들은 일상적인 情愫에 쏠리면서 생활전반에 걸쳐 있어 도민의 심층의식이나 구체적 정서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거기다가 고난을 이겨내는 生活哲理와 詩的 비유를 통한 뛰어난 표현은 <시집살이 노래>의 문학성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민요에 나타나는 수사적 특징은 민요의 다른 문체적 특징과 함께 기억과 이해를 돕고 정서적 효과를 내는 구실을 한다.⁵³⁾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수사상의 특질을 소재와 해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52) 문무병, "서우계소리의 무가적성격", 88. 2. 23. 민요학회 제3차 세미나발표.

53) 윤치부, "한국자장가연구", <제주도연구> 제2집 별책, 1985.

1. 소재

다음 두편의 노래를 보자.

A. 지계지계	무지계
우리아방	날지운지계
놈이 보린	무지계지완
지와노난	부리지못한다. ⁵⁴⁾
B. 놈의첩광	소남귀보름은
소린나도	살을메우나
지서명광	오름엿들은
소린나도	살을메난다. ⁵⁵⁾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한 A에서는 시집살이를 '무지계'에 비유하여 남들이 어렵다 생각하여 마다한 시집을 아버지의 권유로 갔는데 한번 와보니 그만두지 못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리고 '지계'의 반복적인 상징을 통해 심미적 쾌감까지 주고 있다. 더우기 여자는 한번 시집가면 평생을 시집식구로 살아야 한다는 시집관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는 시적 경지에까지 이른다고 보아진다.

B노래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첩노래의 典型을 이룬다. 오름에 아무렇게나 나뉘기는 돌을 '지서명'에, 소나무바람을 '첩'에 비유하여 뛰어난 대비를 보여준다. 현명하고 정숙한 처는 봉우리의 돌처럼 외롭게 버려져서 웅글다가도 결국은 살 도리가 생기게 되지만, 남의 첩은 소나무에 부딪쳐 요란스럽기만 한 바람처럼 걸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속이 없어 허망하다고 옳고 있다. 이 노래의 소재는 일상적이면서도 제주도의 女多, 風多, 石多, 곧

54)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 上》, 499번의 자료

55) 필자조사, 1988. 7. 3. 성산읍 수산1리.

三多를 고루 동원하는 바 이 또한 기념비적이라 하겠다.⁵⁶⁾ 이러한 시적 비유들은 창자의 특유한 직관능력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시집살이 노래〉의 전국적 유형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서는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형용사나 수식구에 의한 관용적 표현이 지속적으로 두루 쓰인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대립적 혹은 울격적으로 나타나 현실을 전형화 시키는 데 막대한 효과를 얻고 있다.

A	우리어머님	날 날 때에
	무신날에	날 놓던고
	눔난날에	낱건나곡
	눔난날에	낱건마는
	전생곳덴	구월에나난
	구엿곳도	내벗이더라
B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땡헛데가
	아이고야야	말도나말라
	생강고추가	매울맹흐들
	시집살이보다	에~더매울소나
	사살남피담은	씨어멍에
	코생이담은	씨누이더라
	장독담은	씨아방에
	물꾸럭담은	서방이더라
	이에저에	살단보난
	검은머리가	흰머리로구나
	친정아버지	시집갈때
	무신말을	굶아신고허난
	큰년아	시집가민
	말몰랑	삼년이여
	귀막앙	삼년이여

56) 김영돈, "제주도 민요개관", 《국어국문학연감》(고전문학편), 二友出版社, 1977.

눈멀엉	삼년이여	
살암시민	살아나진다	
살당살당	못사난	
남편에	보곡	
친정에	도리다도랜허엇겨	
친정더래	돌아가당보난	
시월에	앉은평이	
파드득	나라간다	
C	아용다용	가심쟁이랑 시어머님 주구
	조진조진	주둥이랑 시누이불 주구
	더퍼더퍼	놀개라그네 시아버님 주어나져라
	종긱종긱	뒗다리랑 이내낭군 주구나져라. ⁵⁷⁾

위의 표현법들은 비유에 의한 표현과 유사한 음의 반복을 통해 골계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집식구들을 골계스런 존재로 만들어 비판적 거리를 두고 꼬집고 있다.

A는 제주도 사람들의 數觀念의 반영인 듯하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9월 9일을 巫祖가 태어난 날이라 해서 심방들의 집에서 심방굿을 하는데,⁵⁸⁾ 巫祖가 태어났다 해서 이달에 태어난 여자는 박복하다는 俗信이 민간에 남아 있다. 또한 9자 든 나이에는 액운이 낄다고 하는 俗信도 남아 있다. A에서 '구월'과 '구엇곳'이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B는 海魚에 C는 평의 신체부분에 姻家族들을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들에서 소재를 택하여 시집식구들의 성격을 잘 묘사해내고 있다. 具象的, 日常的, 可視的인 것들을 끌어다가 즐겨 비유함으로써 그 等式的 緊張體系를 高調하여 그 歌意를 실감있게 즐긴다. 이것은 민요에서 흔히 보는 題材와 비유의 특성이기도 하다.⁵⁹⁾

57) 필자채록, 1988. 3. 26. 조천읍 신촌리, 제보자: 김경생, 女·70세.
 58) 김영돈, 《旌義고을》,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p. 280.
 59)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있어 비유법 수사",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p. 19.

B에서는 매운 시집살이는 '생강고추'에, 시어머니는 '사살납피'에, 작고 약삭빠른 시누이는 용치놀래기인 '코생이'에, 거친 시아버지는 '장뉘'에, 딸을 벌리며 달려드는 남편은 '물꾸럭'에 비유하고 있다. C에서는 '늑개'는 허물을 덮어주는 시아버지에게, '가심쟁'은 머느리 속마음을 아프게 한 시어머니에게, '주둥이'는 온갖 고자질을 하여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시누이에게, 힘센 뒷다리는 약한 신랑에게 주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필자가 분류 대상으로 한 자료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소재를 분류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표2)

또한 많은 민요에서 언어의 반복적 효과를 얻고 있는데 '더퍼더퍼', '아용다용', '즈진즈진', '종긋종긋'과 더불어 '장닭같은 시아방은 극극극극 극극극극/ 암닭같은 시어멍은 개개개개 개개개개/ 물꾸럭같은 서방놈은 뽕작뽕작 뽕작뽕작/ 줄락같은 시누이년은 줄락줄락 줄락줄락'처럼 음성상징을 통해 반복하는가 하면 '시아방은 구쟁기 녀이 나물보민 세들각혼다/ 시어멍은 암핏의 녀이 나물보민 오지직혼다/ 시누이년은 코생이 녀이 나물보민 호로록혼다/ 서방님은 문계의 녀이 나물보민 엉쿠정혼다'고 표현하여 魚介의 모습에 시집식구들의 행동을 빗대기도 한다.

민요에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도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상의 특질은 민요를 문학의 단계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해학

해학은 美的 범주의 하나인 골계의 복잡화한 한 형식으로⁶⁰⁾ 모순을 드러내기는 하되 한층 넓고 깊게 통찰하여 동정적으로 감싸주므로 인간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요는 이러한 해학을 통해 현실극복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민요에서의 해학은 평민적인 생활감정을 토대로 이루어

60) 문덕수, 《세계문예대사전》, 成文閣, 1975.

()속의 숫자는 빈도수
 ★는 같은 것이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림

<표2>

인물 비유소재	시아버지	시아머니	시누이	남편	시아지방	시애기	시할망
家禽類	장 늪(13)	암 목(20) 씨 암 목(1)		장 늪(4)		뱀 애 기(1)	
어 패 류	구계기 (구쟁기 : 12)	★ 암 뿔(5) ★ 암 침 복(2) 침 복(1) 구 쟁 기(1)	구 쟁 기(1) 코 쟁 이(7) 줄 락(4) 술 취(1) 불 락(1) 초 랭 이(1) 술 락(1)	★ 물 꾸 럭(12) ★ 몽 개(4) ★ 문 계(2) 술 취(1) 물 꾸 러 미(1) 미 꾸 럭(1)	코 쟁 이(2)		
조 류		견 승 새(1)	종 조 리(4)	무 독 새(1)			
동 물			호 랭 이(1) 죽 계 비(4)				
곤 충			베 룩(2)				
인물의성격			모 질 이(1) 노 입 겨 대(1)	뽕 신(1) 물 쭈 시(1)	뽕 동 판(1)		
기 타		논 물(1) 사 삼 남 피(1)		등 잔(1)			순 착(1)

지고 평민적인 생활감정을 긍정한다.⁶¹⁾ 민요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노래이면 서 민요의 창자는 사회적 통념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충실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해학은 노래 속에 함축되어 있는 內容的인 해학과 언어표현에 나타나는 수사적인 해학⁶²⁾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 저가마귀	시실피울멍
어느누계	돌아나갈티
아들가멍	딸가멍하라
메늘아기	돌아나가라
옛메누리	차레로가민
낸덜아니	가리야마는. ⁶³⁾

B. 씨아방아	거꾸러지라
진진담벧대	내추지여
씨어멍아	거꾸러지라
폐팡구석도	내추지여
씨누이년아	거꾸러지라
살래구석도	내추지여
서방남아	거꾸러지라
동네부랑제	내추지여

C. 간간놀젠	놈의첩드난
나갈길이	어디더냐
놀멍놈외눈에	눈물지우난
아긴나난	입피왜기
조루래기	되더라혼다. ⁶⁵⁾

61) 조동일, “민요에 나타난 해학”, 《우리문학과 의 만남》, 흥성사, 1978.

62) 장덕순, “한국고대소설과 해학”

63)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 上》, 483번의 자료.

64) 김영돈, 위의 책, 455번의 자료.

65) 필자조사, 안덕면 덕수리, 1988. 3. 28. 제보자 : 양미생, 女·82세.

A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제주도에서 가마귀는 저승사자라고 하여 가마귀가 지붕 위에서 세번 울고 가면 그 집에 甃을 당한다는 民俗的 禁忌가 있다. 아마 가마귀 떼가 울면서 집 주위를 빙빙 돌자 시어머니가 조바심이 나서 아들이나 딸을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알미운 며느리나 데려갔으면 한 것이다. 그러자 언제 그 말을 들었는지 며느리는 옛 며느리 차례로 가면 자신은 그때 가겠노라고 항변하는 노래다. 며느리의 이러한 뛰어난 발상은 시어머니의 부당함에 반항하여 대립되는 의지가 뚜렷이 나타난다. B에서는 안타고니스트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등이 모두 없으면 자신이 담뱃대, 고팡, 부엌, 동네 남자들까지도 모두 차지하겠다고 대담하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물고간다. C에서는 안타고니스트로서의 미운 첩을 노래한 것인데 놀면서 남의 집에 들어 화목함을 깨고 눈물지우게 한 벌로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더라는 내용으로, 선한 사람은 복을 얻고 악한 사람은 화를 입는다는 지극히 민중적이며 소박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노래다.

위의 노래들은 내용적인 해학으로서 현실에 대한 체념보다는 뛰어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이며,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표출하고자 하는 소산으로 보여진다.

A. 서귀포간	환상땃똥타단
밀멧골안	범벅호난
조갱이로	호나매기
씨아바님	호순가락
씨어머님	호순가락
씨누이	호순가락
넌펜도	호순가락주난
넌펜은	나쁘난
각셀	특패난
각션	용심나난
개를	특패난
갠	용심나난

고냉일

물었으나.⁶⁶⁾

- B. 시아방 삼퉁이에 채걸어도 승
 시어멍 삼퉁이에 누꼐썰어도 승
 시아방 콧등에 퉁고망썰어도 승
 냄뱅으로 꺾레츠평막아도 승
 굶은체로 불 담아도 승
 이것도 승보곡 저것도 승보난
 술담배 츠앙 어멍살리.⁶⁷⁾

- C. 씨집에가서 상방문을 열고보니
 씨아방앉아 호령소리
 아자자 아자자
 정진문을 열고보니
 씨어머니앉아 독살소리
 이여자 이여자.⁶⁸⁾

시집식구가 모두 등장되면서 말꼬리잇기를 하고 있는 A에서는 언어유희를 통해 생활고로 인한 고난이 해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때리자 아내는 개를, 개는 고양이를 물어 화풀이하는 것을 통해 강자에게는 무력하면서 약자에게는 강한 인간의 심리를 해학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등장시켜 인간과 동일한 환경에 갖다놓음으로써 더 큰 효과를 얻고 있다. B에서는 시아버지 머리에 체 거는 행위, 시어머니 무릎 위에서 나물 썰는 행위, 시아버지 코 앞에서 뒤 닦는 행위, 남방아로 멧돌자루 박는 행위, 굶은 체로 불담는 행위, 앞치마로 코 닦는 행위 등 모두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는 시집식구들을 나무라면서 오히려 자신의 술·담배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과감성을 보이며 ‘승’을 반복

66) 위의 책, 459번의 자료.

67) 김영돈, 위의 책, 416번의 자료.

68) 林 和, 《朝鮮民謠選》, 64번, p. 216.

함으로써 언어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C에서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행동이 ‘아자자 아자자’, ‘이여자 이여자’로 표현하여 골계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용적, 수사적 해학은 모두 문학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우수한 수법으로 작품 외적 자아가 작품 내적 자아의 고난이나 비탄에 몰아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여 겉으로 보서는 슬프지만 슬픔과 해학을 함께 지니고 있어 해학이 슬픔에 빠져들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실을 한다.⁶⁹⁾ 우리는 이러한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민요의 특징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적 미의식의 특질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VI. 마 무 리

본 연구는 사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의 진솔한 생활감정을 읊은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작품세계를 통해 평민여성문학으로서의 의의와 노래에 반영되는 정서를 통해 문학적 가치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 노래를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작품의 외적 전승양상을 간단히 살피고 주로 작품 내적인 문학적 연구에 초점을 두어 인물의 유형과 갈등양상, 전개방식, 수사상의 특질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1) <시집살이 노래>는 개인감정을 토로한 신세한탄이면서 동시에 여성집단의 노래로 개별성과 동질성을 함께 지닌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시름을 잊기 위한 자기표현의 욕구로 서정적인 노래를 불렀고, 오랜 시간 일의 고됨에서 일을 쉽게 하여 능률을 올리기 위한 일의 성취기대로 하여 서사적인 노래를 불렀다. 따라서 <시집살이 노래>는 노동과 무관하지 않고, <맷돌·방아 노래>, <김매는 노래>, <베를노래>, <도리깨질노래> 등에 나타나는 일노래적 성격이 있으나 그 기능은 어느 하나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해녀들이 부르는 잠가에서와 같이 일과 관계없이 개인의 生涯歷을 담거나 장형화하는

69) 조동일, “민요에 나타난 해학”, <우리문학과 의 만남>, 흥성사, 1978.

비기능적 요소를 아울러 지낸다. 그리고 노래의 전승은 창자와 청중의 심리적 거리에 영향이 있는 듯하다.

(2) <시집살이 노래>는 프로타고니스트로서의 '시집간 여자'와 안타고니스트로서 시집식구전반,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첩, 친정식구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이들의 갈등을 통해 사회적 제도와 도민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결혼과 함께 分家하는 가족제도로 인해 대가족이 함께 사는 육지에 비해 시집식구와의 갈등이 적은 반면 女多男少와 함께 본처와 첩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첩제도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오히려 첩과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점은 곧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특질이기도 하다.

(3) 인물의 갈등양상은 프로타고니스트의 요구가 '기대와 좌절의 반복구조'로 나타난다.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전개방식을 통해서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는 제주도 사람들의 구체적 정서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의 역사와 삶의 체험을 내용으로 하여 사건화하는 경우와 노동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서민정서와 연결되어 심상화하는 경우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비판적 정서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체념이 아니라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는 변증법적 정서라고 본다.

(4)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의 문학성을 돋보이게 하는 수사상의 특징을 소재와 해학을 통해 살펴보았다. 수사의 모티브들은 사물의 특징이나 인물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현실을 전형화하는데 마뜩한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평민적인 생활감정을 토대로 이뤄지는 해학은 강한 현실부정을 보이는 것으로 한국적 미의식의 특징을 구명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성격의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는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의 갈등을 통해 현실에 대한 강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평민여성문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 <시집살이 노래>를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의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방향설정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민요를 하나의 작품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믿으며 <시집살이 노래>가 지니는 평민여성문학으로서의 인식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요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시해야 될 점은 철저한 현장조사 아래 구비문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구연상황, 사회상황 등에 철저하지 못하고 문학적 연구에만 치우친 점은 구비문학 연구로서의 한계를 남겨 놓고 있다. 앞으로 뚜렷한 역사적,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폭넓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록문학이나 다른 구전문학과의 비교도 의의있는 작업일 것이다. 나아가 음악적, 민속학적 연구를 포함하는 종합적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參 考 文 獻

〈자료집〉

- 金思燁·崔常壽·方鍾鉉;《朝鮮民謠集成》, 서울인쇄사, 1948.
-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金永三;《濟州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 任東權;《韓國民謠集Ⅰ》, 集文堂, 1961.
- _____ ;《韓國民謠集Ⅱ》, 集文堂, 1974.
- _____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9.
- 林 和;《朝鮮民謠選》, 學芸社, 1939.
- 秦聖麒;《南國의 民謠》,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 洪貞杓;《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1963.
- 金榮敦;《濟州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濟州道, 1986.
- 金榮敦·玄容駿;《韓國口碑文學大系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 권오성·김영돈·이보형·한만영;《韓國의 民俗音樂 -제주도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오성찬;《제주마을 시리즈3》(함덕리), 도서출판반석, 1986.
- _____ ;《제주마을 시리즈4》(호근·서호리), 도서출판반석, 1986.
- _____ ;《제주마을 시리즈5》(古城里), 도서출판반석, 1987.
- _____ ;《제주마을 시리즈7》(봉개리), 도서출판반석, 1988.
- 金榮敦;《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5》,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1977.
- 濟大 국문과;《國文學報》8집, 제대국어국문학과, 1986.
- 濟大 국문·국어교육과;《學術調查報告書》7집, 제대 국문·국어교육학과, 1982.
- _____ ;《學術調查報告書》8집, 제대 국문·국어교육학과, 1984.
- 濟大 국어교육과;《白鹿語文》창간호, 제대 국어교육과, 1986.
- _____ ;《白鹿語文》제2집, 제대 국어교육과, 1987.

〈論文〉

金榮敦: "제주도민요 맺들·방아노래", 《국어국문학20》, 국어국문학회, 1986.

_____ : "제주도민요개관", 《국어국문학연감 -고전문학편-》, 二友出版社, 1977.

_____ : "민요의 기능과사설",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_____ : "제주민요의 분류", 《東岳語文》제17집, 1983.

_____ : "제주도민요의 분포와 풍토", 《국문학보》 2집, 계대국문과, 1963.

_____ : "이여도와 제주민요", 靜山丁益燮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85.

김재영: "민요의 제재와 그 의미", 《한국민요론》(최철편), 집문당, 1986.

羅承晚: "吟咏民謠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석사논문, 1983.

문무병: "서우젯소리의 무가적 성격", 세미나발표요지, 1988. 2. 23 교육대학
원장실.

서영숙: "시집살이 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윤치부: "한국자장가연구", 《제주도연구》 제2집 별세, 1985.

李光奎: "民謠에 비친 시집살이", 《韓國文化人類學》제13집, 문화인류학회,
1980.

張成鎮: "시집살이謠의 類型과 人物", 《女性問題研究》제13집, 효성여대한국여
성문제연구소, 1985.

趙東一: "민요에 나타난 해학", 《우리문학과 의 만남》, 흥성사, 1978.

_____ : "국문학의 지속성과 변화",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著書〉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도서출판조약돌, 1983.

- 설영환역;《용심리학해설》, 선영사, 1986.
- 신경림;《민요기행》, 한길사, 1985.
- 任東權;《한국민요연구》, 二友出版社, 1980.
 _____;《한국부요연구》, 集文堂, 1982.
- 鄭東華;《한국민요의사적연구》, 일조각, 1981.
- 趙東一;《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_____;《叙事民謠研究》, 계명대출판부, 1970.
 _____;《우리문학과와의 만남》, 흥성사, 1978.
- 崔在錫;《한국가족연구》, 一志社, 1982.
 _____;《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 최철 편저;《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